

사회

고용허가제 시행 5년 ... 광주·전남 이주노동자들

3D업종 '효자'서 '해고 0순위'로

올 3,838명 실직 불법체류 등 부작용

산업연수제보단 개선...인권·처우 취약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17일로 시행 5주년을 맞았다.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및 고용 조건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나 임금차별, 체불, 직장 선택 제한 등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브로커 횡포로 대표되는 이주노동자 송출 과정에서 부작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9일 노동부 산하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2004년 8월 17일 이후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으로 투입된 이주노동자는 2만5천748명에 달한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도입 후 5년간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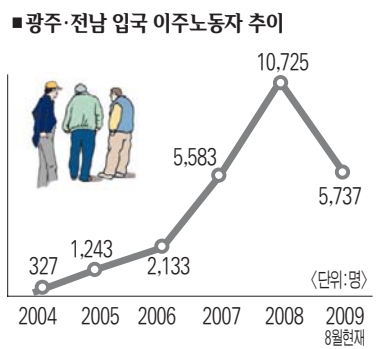
고용허가제 시행은 이주노동자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광주·전남은 지난 2004년 이주노동자 327명이 산업현장에 투입된 후 ▲2005년(1천243명) ▲2006년(2천133명) ▲2007년(5천583명) ▲2008년(1만725명) 등으로 무려 3배 가량 늘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말부터 급변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와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이다.

우선 올 들어 광주·전남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5천737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최근엔 이주노동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

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나서면서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만 3천838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천162명)보다 77.5%(1천676명)나 늘어난 수치로, 그동안 '3D 업종'에서 '효자' 노릇을 해왔던 외국인들이 막상 불황이 닥치자 '해고 0순위'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고스란히 불법 체류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3년 안에 세 번까지만 이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구직기간은 두 달을 넘길 수 없다. 또



폐업 등 회사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2개월 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효자' 노릇을 해왔던 외국인들이 막상 불황이 닥치자 '해고 0순위'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출과정의 문제점도 여전하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업체의 고용환경 개선을 물론, 산업연수생 시절 만났던 송출업체의 지나친 폭리 등의 폐

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등 국내 이주노동자 5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평균 331만원(약 2천635달러)을 들여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베트남 출신 노동자의 경우 '코리아 드림'을 위해 768만원(6천105달러)을 건넬 정도로 현지 송출업체들의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광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5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현지 송출업체의 말에 속아 목돈을 건네고 있다"며 "또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온 뒤에도 임금차별이나 체불, 산업재해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최형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용허가제가 시행 5년째를 맞이했지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 및 처우 등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지난해 5월 18일 자카르타 외곽인 데폭(Depok)의 '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 입국을 앞두고 사진교육을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청산가리 음독 진실은?

밀에 현장 들킨 40대 주부

내연남 부인 차내에서 사망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차량 의문사' 사건(본보 3일자 6면)은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사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4시20분경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차량 안에서 숨진 A(여·45)씨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직접 사망원인이 청산가리 중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부터 진모(49)씨와 내연관계였으며, 사망 당일에도 고속도로 정음 휴게소에서 진씨와 함께 있던 중 진씨 부인 K씨에게 발각됐다. 이후 K씨에 이끌려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진 뒤, 광주로 오던 중 숨졌다.

K씨는 경찰에서 "승용차를 몰고 정음에서 광주로 내려오던 중에 A씨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입에 거품을 물며 발작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불륜에 대한 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K씨의 차를 타고 광주로 오던중 청산가리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냐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A씨가 숨진 차량의 조수석 발판 등에서 소량의 청산가리 성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음독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독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넘도록 내연남 진모(49)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진씨가) 모임에 항상 A씨를 대동했으며, '생사를 같이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씨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진씨는 A씨가 숨진 날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원침 (7884) 김종두



전국 농촌 들며 빈집털이

순천경찰은 17일 농촌의 빈집 등에서 금품을 훔친 이모(23)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달 4일 순천시 낙안면 박모(여·60)씨 집에 들어가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전국을 돌며 69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선장들 무전기로 말다툼 끝 흥기소동

○조업중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 흥기를 휘두른 선장들과 여수선적의 선장들이 나란히 경찰서행.

○목포해양경찰은 17일 무선교신을 하던 중 상대 배를 향해 어업용 흥기를 휘두른 신안선적 통발어선 김모(54) 선장과 여수선적 김모(47) 선장을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

○이들 두 김 선장은 전남 오전 7시경 신안군 임자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상황을 묻는 여수선적의 무선에 대해 신안선적 김 선장이 "여수에서나 조업을 하라"며 텃세를 부린 것이 다툼의 발단이 됐다.

○경찰은 범행을 시인한 여수선적 김 선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으나, 40여분간 도주하다 붙잡힌 신안선적 김 선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목포=대성기자 dss@

호남고속도로 탱크로리서 염산 1t 유출

경찰·119 긴급방제

호남고속도로에서 염산을 싣고 달리던 탱크로리에 균열이 생겨 염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8시경 순천시 승주읍 두월리 호남고속도로 순천 기점 광주방향 16km 지점을 지나 인천으로 달리던 경복98사 x x x 호 탱크로리(운전자 김모·43)에서 염산이 흘러나와 경찰과 119 등이 긴급 방제를 벌

였다.

이날 사고는 갑자기 탱크로리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했으며, 운전자 김씨는 염산이 유출되면서 연기가 발생하자 차량을 긴급히 갖길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로 약 1t의 염산이 도로변에 유출됐고 운전자 김씨가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했으나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대포차' 150대 유통 수천만원 책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속칭 '대포차' 150여대를 자신의 자동차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해두고 수천만원을 챙긴 오모(51)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0월 구례군에 차량 매매상사를 차려놓고 '대포차'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1대를 출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62차례 걸쳐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출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일부 운전자들이 취득·등록세와 책임보험료는 물론, 과속·신호위반 범칙금 등을 내지 않기 위해 '대포차'를 원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가 양산한 143대의 대포차 운전자들은 모두 184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한 차량은 범칙금이 170만원이나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빈 아파트 침입 시계·반지 절도

동부경찰, 30대 영장

광주동부경찰은 17일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털어온 A(36)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9일 오전 11시20분경 광주 동구 모 아파트 B(여·75)씨의 집에 침입, 58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와 500만원 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카페·식당 들며 양주·현금 훔쳐

목포경찰, 50대 영장

목포경찰은 17일 광주·전남의 아파트 상가와 식당 등을 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안모(54)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2시경 목포시 산정동 모 카페에 몰래 들어가 양주와 현금 20만원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62차례 걸쳐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출전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대성기자 dss@kwangju.co.kr

비데프리카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 돈보따 비데

부딪는 건물은 한결이 뜨겁다!  
다, 노비타 비데를 만나기 전까지는...  
방식이 다른 비데 전문가들이 전하는  
없을 수 없는 요도 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NO-KA150  
370,000원  
195,000원

노비타비데는...  
비데프리카 | 피062)515-1144

사람에게 힘을 주는 유익한 그림(지능, 건강 등)  
힘이 상연 전시장 오름(1100)서도 마서서 기쁨 그림도 박사(1100)

# 분취취서화

英體 寫書 畫  
작가 안중선

HAVER

수업료...  
문의...  
011-222-3670 H 011-222-3675